

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.

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,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-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.

4ba3ac1aad93eece626f27e3a860603821417bf70825a541e007bb640dc83d5d

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,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.

- 주요 뉴스: ECB,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(PEPP) 축소 여부 결정이 주요 과제
  - 금년 글로벌 M&A, 연간 사상 최고치('07년, \$4.3조) 경신 유력
  -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, 바이든 행정부는 3.5조달러 규모의 자출계획을 지속 추진
  - 골드만 삭스, 중국 정부의 규제강화로 통화 및 재정정책 완화 필요성 증가
- 국제금융시장(주간): 미국은 테이퍼링 조기 시행 우려 완화로 위험 회피 성향 감소  
**주가 상승[+0.6%], 달러화 약세[-0.7%], 금리 상승[+1bp]**
  - 주가: 미국 S&P 500 지수는 대형 기술주에 대한 매수세 강화 등이 견인  
 유로 Stoxx 600 지수는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 등으로 소폭 하락
 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 가능성 등이 배경  
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.7%, 0.1% 상승
 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월말 포트폴리오 조정 등이 반영  
 독일은 ECB의 자산매입 축소 가능성 등으로 6bp 상승

※ 원/달러 환율(주간) 1.1% 하락, 한국 CDS 보합

|    |      | 9/3일    | 8/27일   | 전주말대비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9/3일    | 8/27일   | 전주말대비 |
|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주가 | 미국   | 4,535.4 | 4,509.4 | 0.58%  | 국채<br>금리<br>10y | 미국    | 1.32%   | 1.31%   | 1bp   |
|    | 유럽   | 471.93  | 472.34  | -0.09% |                 | 독일    | -0.36%  | -0.42%  | 6bp   |
|    | 중국   | 3,581.7 | 3,522.2 | 1.69%  | CDS<br>5y       | 한국    | 18bp    | 18bp    | 0bp   |
|    | 일본   | 29,128  | 27,641  | 5.38%  |                 | 중국    | 33bp    | 34bp    | -1bp  |
|    | 한국   | 3,201.1 | 3,133.9 | 2.14%  | 위험<br>지표        | EMBI+ | 348     | 356     | -8bp  |
| 환율 | 달러지수 | 92.04   | 92.69   | -0.70% |                 | VIX   | 16.41   | 16.39   | 0.12% |
|    | 유로화  | 1.1880  | 1.1795  | 0.72%  |                 | WTI유  | 69.29   | 68.74   | 0.80% |
|    | 엔화   | 109.71  | 109.84  | 0.12%  | 원자재             | 구리    | 432.6   | 431.9   | 0.16% |
|    | 위안화  | 6.4552  | 6.4720  | 0.26%  |                 | 금     | 1,827.7 | 1,817.6 | 0.56% |
|    | 원화   | 1,157.0 | 1,169.2 | 1.05%  |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|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## 금일의 포커스

### ■ ECB,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(PEPP) 축소 여부 결정이 주요 과제

- ECB는 금주 목요일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상승을 감안해 PEPP의 축소에 나설 것인지 선택의 시기에 직면. Barclays의 Silvia Ardagna는 PEPP 매입액이 현행 월 800억유로에서 600~700억유로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
- 그 동안 ECB는 역내 물가상승을 일시적 현상으로 인식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. 하지만 이는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8월 고용통계에도 불구하고 11월 혹은 12월 자산매입 축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연준의 움직임과는 괴리가 존재
- ECB 내부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제기. 그리스 중앙은행 스투나라스 총재는 ECB가 과잉대응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. 반면 네덜란드 중앙은행 노트 총재는 ECB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다면서 부양책에 보다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

## 글로벌 동향 및 이슈

### ■ 금년 글로벌 M&A, 연간 사상 최고치('07년, \$4.3조) 경신 유력

- 1~8월 M&A 금액은 \$3.9조에 달해 전년 동기대비 2배를 넘어섰으며 연간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금융위기 직전 2007년 \$4.3조 기록 경신 유력
- 저금리·사모펀드 자금유입 등 우호적 자금조달 여건, 주가 및 기업이익 고공행진이 활성화 배경으로 제시. 전체 M&A 중 Tech 부문 비중이 21%(\$8320억)에 달해 기술주 붐이 일었던 2000년 이래 최대비중 기록 중

### ■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, 바이든 행정부는 3.5조달러 규모의 지출계획을 지속 추진

- 론 클레인 실장은 해당 계획의 상하원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. 최근 민주당의 조 만친 상원의원이 이와 관련된 협상을 잠시 중단하자고 언급하면서 일부에서는 백악관이 지출계획의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전망 제기

### ■ 미국 민주당, 자사주 매입 혹은 과도한 CEO 보수 등에 대한 과세를 검토

- 관계자에 따르면, 민주당은 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계획. 이번에 검토되는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것보다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

- **이탈리아 총리, 경제는 예상보다 양호하지만 고성장 유지 위해 구조개혁이 필요**
  - 드라기 총리는 경제개혁의 구체적인 추진이 2022년 경제 성장의 열쇠라고 주장. 9월 말까지 12세 이상 국민 80%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예상
- **스위스 중앙은행 이사, 확장적 통화정책의 유지는 매우 중요**
  - 매첼러 이사는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고 경제가 양호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수준 자체가 낮은 것을 감안할 때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
- **러시아 중앙은행 총재, 인플레이션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**
  - 엘비라 나비올리나 총재는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18개월 이내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. 부채가 대폭 증가한 현 상황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세계경제는 급격히 악화된다고 우려
- **골드만 삭스, 중국 정부의 규제강화로 통화 및 재정정책 완화 필요성 증가**
  - Hui Shan 이코노미스트는 특정 부문에 대한 규제 강화로 타격을 받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보다 완화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. 중국 경제지표는 8월까지 취약할 수 있지만, 4/4분기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
- **미국 멕시코만 지역 에너지 생산, 허리케인에 따른 시설 피해로 90% 감소**
  - 내무부, 허리케인 아이다 영향으로 해당 지역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각각 93%, 89% 감소. 미국 내 멕시코만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비중은 각각 17%, 5%
- **전세계 그린본드(Green Bond) 발행 규모, 2023년 1조달러까지 증가 예상**
  - Climate Bonds Initiative, 금년 4500억달러 규모의 그린본드 발행이 예상되며 2022,23년에는 각각 6750억달러, 1조달러까지 늘어날 전망. 다만 그린본드 수요도 상당하여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은 낮은 편

## 주요 경제지표

- **주요 경제 이벤트(9/6 현지시각 기준)**
  - 미국 증시 노동절 휴장, 유로존 경제·재무장관회의
  - 유로존 9월 섹터 투자자신뢰지수, 독일 7월 제조업 수주

##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### ■ 중국의 정부 주도 산업정책, 미국은 비난보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 - WSI

(China's Industrial Planning Evolves, Stirring U.S. Concerns)

- 과거 중국 정부가 추진한 농업 및 제조업 생산 증대 목표와 달리, 약 15년 전부터 시작된 산업개발정책을 기반으로 최근 기초과학 분야의 정부 투자가 현저. 특히 미국을 모방하여 의료, 국방, 항공우주 및 반도체 등에 정부 주도 투자가 활발히 진행
- Columbia 대학의 Jeffrey Sachs는 중국이 기술혁신을 위해 투자를 하고 있으며, 이를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국 정치인들의 오류라고 지적. 이에 미국은 신기술 등 혁신에 대한 정부 주도 투자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

### ■ 미국의 8월 부진한 고용지표, 채권시장 변동성은 감소할 전망 - 블룸버그

(Bond-Market Day of Reckoning Denied as Weak Jobs Dim Taper Talk)

- 지난 주 미국 채권시장의 유명 투자자 Bill Gross는 국채 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연준 테이퍼링 실시가 국채수익률 급등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경고. 하지만 델타 변이 확산과 실망스러운 8월 고용지표는 국채 금리 상승에 상당한 제약 요인
- Wilshire Phoenix LLC의 Bill Herrmann은 노동시장 데이터는 델타 변이의 두려움을 반증하기 때문에, 연준 정책 정상화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.
-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주간 10bps 이상 움직인 지 6개월이 지나가는 등 저변동성 장세 지속. 지난 주 국채 옵션시장에서도 11월까지 10년물 국채 금리의 좁은 범위 내 등락(1.05~1.6%)을 예상하는 변동성 축소 기대 포지션이 등장

### ■ 암호화폐,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한 개발도상국에 통용이 유리 - Financial Times

(Cryptocurrencies: developing countries provide fertile ground)

### ■ 미국 채권투자자, 신용등급이 없고 유동성이 낮은 고위험 채권 투자가 증가 - WSI

(Search for Yield Leads Bond Buyers to Unrated Debt)

### ■ OPEC+의 원유 생산 증가, 2022년 대규모 재고 전망으로 정책 변경이 요구 - 블룸버그

(Oil Producers Enjoy the Calm Before the 2022 Storm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[ikyoon@kcif.or.kr](mailto:ikyoon@kcif.or.kr)